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27.(금) 13:00 배포 2026. 11. 27.(금) 06:00

2026년 K-라이스벨트 성과공유회 개최

- 지난 4년간의 K-라이스벨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 모색, 관계 부처·국제기구·민간 기업·단체·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 명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농어촌공사')는 11월 27일(금)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라이스벨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개발협력주간(11.24~27)의 부대행사로 아프리카 주요 쌀 소비국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해온 「K-라이스벨트사업*」(이하 '라벨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아프리카 각 국에 맞는 고품질·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각 국의 식량안보를 지원하는 한국형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라벨 사업은 '23년 가나를 시작으로 '24년 감비아·기니·세네갈·우간다·카메룬·케냐, '26년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정책 수립 및 총괄, 농진청은 우량종자 생산 및 기술 전수, 농어촌공사는 종자생산 인프라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아프리카 사업국을 대표하여 대사관 관계자와 ODA 관련 국무조정실·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부처·기관, 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국제농업개발기금(IFAD)·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단체·기업, 언론 등 각계에서 1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라벨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1부)에서 이승돈 농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라벨 사업 후 현지 농가의 평균생산성은 4.6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우간다는 지역

농민조합 중심의 자율 생산을 통해 최고 9.6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환영사에서 "내년부터 가나를 시작으로 종자생산단지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등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가시화될 예정이며, 앞으로 수원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과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발표 및 토론 세션(2부)에서는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에서 차례로 라벨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현장 우수사례로 케냐에서의 벼 종자 생산체계, 세네갈 벼 종자 생산단지 조성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어 이명수 좌장(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 하에 5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동 사업이 아프리카의 쌀 증산 노력을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 ODA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현재의 품종개발, 재배기술전수 및 안정적 종자 생산기반 조성 외에도 시민단체(NGO)·기업·국제기구와 연계한 파트너십, 지역 내 청년농업인 참여,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가치사슬 강화 등을 라벨 사업의 주요 확산·발전 과제로 제시하였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오늘 성과공유회는 농식품부·농진청·농어촌공사가 처음으로 합동 개최한 것으로 라벨 사업이 지난 4년간 걸어온 길을 종합 점검하고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신 제언을 정책과 현장에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라벨 사업이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붙임. K-라이스벨트 성과공유회 홍보 리플릿

담당 부서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서기관	강대일 (044-201-12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참고 | **K-라이스벨트 성과공유회 홍보 리플릿**



